



KWC 2021 수상 와인 릴레이 칠레

제17회 코리아와인챌린지(이하 KWC)에서 가장 많은 수상을 거머쥔 국가, 바로 칠레다.
 많은 와인을 출품하며 한국 시장에 대한 열정을 보인 칠레의 와인은 특히 올해 KWC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여줬다.
 품질 면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뛰어난 와인이 많아 놀라웠다는 심사평은 칠레 와인의 성장을 보여주는 듯하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칠레 와인이라도 산지에 대해서는 낯설 수 있기에,
 칠레의 주요 와인 산지와 한국에서 만나 볼 수 있는 KWC 수상 와인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글 임주희 사진 장영수, 각 와이너리 및 수입사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큰 와인 생산국이자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수출국인 칠레. 남아메리카 남서부에 있는 칠레는 북쪽으로 페루, 북동쪽으로 볼리비아, 동쪽으로 아르헨티나, 그리고 남쪽으로 드레이크 해협을 접하고 있다. 칠레는 남북으로 약 4,300km에 달하는 긴 땅을 가지고 있지만, 동서를 기준으로 보면 64km에 불과하다. 길고 좁게 펼쳐진 독특한 지형은 칠레만의 와인 스타일이 탄생하게 된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이 나라는 서쪽 해안가에서 발달한 해안산맥과 동쪽 아르헨티나와 국경을 이루는 안데스산맥이 국토 중심부를 기준으로 뺨어 있어 광활하고 비옥한 농경지가 발달해 있다. 칠레의 와인 산지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아타카마(Atacama), 코킴보(Coquimbo), 아콩카과(Aconcagua), 센트럴 밸리(Central Valley), 남부 칠레(Southern Chile)이다. 이에서 세분되는 주요 산지와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한 뒤에 KWC 2021에서 수상한 와이너리를 살펴볼 예정이다.



칠레 주요 와인 산지

Aconcagua 아콩카과

아콩카과는 수도인 산티아고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 포도 재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뜨겁고 건조한 기후로 인해 농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었지만, 이곳에서 재배된 까베르네 소비뇽, 시라, 메를로의 품질은 이전의 견해를 완전히 뒤집었다. 이 지역의 포도밭에서 질 좋은 포도가 나는 이유는 훌륭한 자연환경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특히 아르헨티나와 칠레를 가르는 안데스산맥에서 가장 높은 산인 아콩카과산의 영향을 받는다. 산에서 물이 녹아 대지로 공급되는데 이 물에는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관개할 때 특히 유용하다.

Bio Bio 비오 비오

비오 비오는 칠레 남부에 있는 와인 생산지이다. 향기로운 포도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이름나 있다. 포도밭은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를 띠며 해발 50~200m 사이에 있다. 대부분 지역보다 바람, 비, 기후 변화가 뚜렷한 편이다. 피노 누아, 샤르도네, 소비뇽 블랑 등이 재배되는데 최근에는 리슬링, 게뷔르츠트라미너와 같은 프랑스와 독일 품종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품종을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독특한 미기후의 영향을 받은 탓이다. 청포도를 다루는 포도원은 45%를 차지하고 피노 누아 생산 비중은 40%에 이른다. 그만큼 화이트와 레드 품종이 골고루 재배된다.

Cachapoal 카차포알

카차포알은 산티아고에서 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중앙 와인 지역에 있다. 기후는 세부 지역별로 차이가 커서 안데스산맥의 찬 지대부터 라펠호 주변의 가장 더운 지역에 이르기까지 매우 대조적이다. 밤낮의 기온 차가 무려 20℃에 이른다. 서쪽에서 동쪽을 가로지르는 카차포알강이 있어 농업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포도 품종은 까베르네 소비뇽, 까르메네르가 있으며 레드 와인 생산이 전체 와인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한다. 그밖에 화이트 품종으로는 소비뇽 블랑, 샤르도네가 있다.



Casablanca 카사블랑카

산티아고에서 태평양을 향해 북서쪽으로 향하는 카사블랑카는 소비뇽 블랑과 샤르도네 재배지로 유명하다. 레드 와인으로는 피노 누아와 메를로가 한몫한다. 칠레 와인 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 서늘한 지역을 찾던 양조인 파블로 모란테에 의해 처음으로 이곳에 포도밭이 일궈졌다. 오늘날 칠레 와인 산지로서 입지를 단단히 다지고 있다. 바다와 근접한 카사블랑카는 짝조름한 공기와 안개로 자주 뒤덮이며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해양의 영향이 뚜렷한 지중해성 기후를 보인다. 토양은 화강암이며 붉은 화산 점토로 이루어져 있다.

Colchagua 콜차구아

센트럴 밸리에 속한 콜차구아는 오래전부터 숙성력 좋은 레드 와인의 명산지로 주목받아 왔다. 이 지역은 산티아고에서 남쪽으로 약 160km 가량 떨어져 있으며 안데스산맥에서 태평양까지 서쪽으로 뻗어 있다. 콜차구아는 북쪽의 마이포보다 약간 시원한 편이지만 지중해성 기후를 띤다. 해발 650피트에서 3,000피트 사이에 포도밭이 분포되어 있어 언덕 위로 올라가면 시원한 바람이 분다. 토양은 화강암, 화산, 점토 및 편암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까베르네 소비뇽, 까르미네르, 시라와 같은 레드 품종이 잘 자라며 일부 지역에서는 말베크, 뽀피베르도, 메를로도 재배한다.

Curicó 꾸리코

18세기 중반에 유럽에서 온 포도나무가 이곳에 심어지면서 꾸리코 산지가 형성되었다. 본격적으로 와인 산업에 영향을 미친 것은 1970년대로 확인된다. 스페인 와인의 전설인 미구엘 토레스가 칠레에 진출했을 때 선택한 땅이며 칠레의 유명 와이너리인 산 페드로, 토레스 등이 이 지역에 있다. 다양한 토양은 안데스산맥의 석회암과 화산암에서 유래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층층에 의해 퇴적되었다. 각 품종에 가장 적합한 토양 조건을 선택해 잠재력 있는 와인을 빚는다.

Maipo 마이포

칠레에서 가장 역사적인 와인 산지인 마이포. 이곳은 15세기에 처음 포도나무를 심었으며 19세기에 보르도의 포도 품종(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등)을 칠레로 수입해 오늘날의 마이포를 구축했다. 종종 '남미의 보르도로 불리기도 한다. 그만큼 풍부한 과실미를 보이는 와인이 아니며, 특히 까베르네 소비뇽이 일품이다. 마이포 중에서도 세계 정상급 와인을 생산하는 알포 마이포의 까베르네 소비뇽은 신선하면서도 건조한 안데스 기후로 인해 와인이 자연스러운 산도를 표현한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칠레의 와이너리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와이너리에서 마이포 산지를 근거지로 선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aule 마울레

마울레는 칠레 최남단에 자리하고 있는 와인 산지이다. 약 100km에 걸쳐 뻗어 있어 큰 규모를 자랑한다. 북쪽 지역보다 시원한 기후를 보이며 연간 강우량이 더 많다. 강렬한 햇빛이 있는 낮과 서늘한 밤이 이어지면서 산미의 균형과 성숙도가 좋은 포도가 난다. 마울레는 오랫동안 양적인 와인에 승부를 걸어왔지만, 오늘날에는 토착 품종과 국제 품종을 다양하게 재배하며 질적인 와인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지난 10년간 페루아 사냥꾼들이 눈여겨 온 산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마울레 지역의 와인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San Antonio 산 안토니오

산티아고에서 서쪽으로 100km 지점에 있는 산 안토니오는 바다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입지하고 있다. 포도밭은 주로 해안에서 4km 내륙 쪽인 비교적 완만한 지역에 있지만, 바다와 가까운 만큼 포도 재배 시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기온이 서늘해 포도가 늦게 익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칠레 와인 재배의 중심 지역에 비하면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질 좋은 소비뇽 블랑, 피노 누아, 시라, 샤르도네 등이 생산된다. 관광과 같은 와인 산업도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다.

KWC 2021 수상 와이너리

7 Colores

7컬러즈는 칠레 중부 전역에 서식하는 작은 새로, 7컬러즈 와이너리 이름의 영감이 되었다. 일곱 가지 색의 깃털을 가지고 있어 7컬러즈의 다채로운 매력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칠레의 대표 와인 생산지인 마이포 밸리를 중심으로 포도밭을 가꾸고 있으며 독특한 와인 블렌딩과 트렌디한 와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와인의 이미지를 깨고 레이블에 새와 새의 깃털로 와이너리를 표현해 젊은 소비자에게 주목받고 있다. 수입사 CSR 와인

수상 와인 리스트

Gold 7 Colores Single Vineyard Red Blend



Casas del Toqui

까사 델 토키는 보르도의 주요 와인 생산자였던 샤토 라로즈 트랑토돈과 전통적인 와인 생산자 가족이 협력하여 만든 와이너리로 1994년에 설립되었다. 2010년, 그들의 유산은 와인에 열정을 가진 코트 패밀리에게 전달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받고 있다. 이들의 포도밭 대부분은 산티아고에서 남쪽으로 약 85km 떨어진 카차포알 밸리에 있다. 층적토와 지중해 기후를 잘 활용해 포도를 재배하며 좋은 기술력으로 고품질 와인을 생산한다. 수입사 BK트레이딩

수상 와인 리스트

Gold Court Rollan Chardonnay Semillon

Gold El Toqui Limited Edition Carmenere

Bronze Court Rollan Genus Cabernet Sauvignon Syrah

Bronze Court Rollan Genus Carmenere Syrah

Bronze Court Rollan Mater Carmenere

Bronze Court Rollan Pater Cabernet Sauvignon



Cono Sur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칠레의 코노수르, 1993년에 설립된 코노수르는 포도 재배와 와인 양조의 경계를 확장하며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며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했다. 규모가 큰 만큼 산 안토니오, 마이포, 카사블랑카, 비오 비오, 카차포알 등 칠레의 내로라하는 산지에서 포도밭을 가꾸고 있다. 현재 아이콘 와인, 친환경 와인, 프리미엄 와인 등 다양한 가격대의 포트폴리오로 소비자에게 다가선다. 수입사 신세계 L&B

수상 와인 리스트

- Gold** Cono Sur 20 Barrels Pinot Noir **Silver** Cono Sur 20 Barrels Cabernet Sauvignon
- Gold** Cono Sur Single Vineyard 8 Grapes **Silver** Cono Sur Ocio
- Gold** Cono Sur Single Vineyard Chardonnay **Silver** Cono Sur Single Vineyard Carmenere

Villard Fine Wines

장 샤를 빌라르는 어릴 적부터 여러 국가를 거치며 자라 문화적 지식이 풍부했다. 와인 산업에서도 오랫동안 일을 해 경험이 풍부했던 그는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기 위해 1989년에 칠레의 카사블랑카 밸리에 빌라르 파인 와인을 설립했다. 당시에는 카사블랑카 밸리가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고 소수의 재배자만 있었기 때문에 빌라르 파인 와인은 지역의 선구자로서 산업을 발전시켰다. 현재 새로운 와인을 빚기 위해 최신 양조 기술을 도입하며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수입사 비노킵즈

수상 와인 리스트

- Bronze** Villard Le Syrah



Viña Apaltagua

아팔타구아의 이야기는 1995년 성공한 미국인 사업가 에드워드 튜튼 지안이 칠레로 휴가를 갔을 때 시작되었다. 그녀는 칠레의 대자연과 와인의 매력에 빠지게 되면서 칠레의 꾸리코 밸리에 있는 포도밭을 인수했다. 점차 사업을 확장한 그녀는 칠레의 핵심 지역에 포도밭을 운영하며 멀티 밸리 와이너리로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오늘날 아팔타구아는 미국, 브라질, 북유럽 등 전 세계의 40여 개국에서 활발한 수출 활동을 하며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 수입사 엘비와인

수상 와인 리스트

- Bronze** Apaltagua Grial



Viña Aresti

칠레 와인 산업에서 오랜 기간 경력을 쌓아온 돈 비센테 아레스티 아스티카는 1951년에 비냐 아레스티를 설립한다. 꾸리코 밸리에 위치한 이 와이너리는 가족 경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3대에 걸쳐 성공적으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 최신식 설비와 지하 오크 배럴룸, 저장고 등을 완비해 우수한 품질의 와인을 생산하며 프리미엄 와이너리로 성장하고 있다. 이들의 와인은 KWC를 비롯해 세계 유수의 와인 품평회 및 매체에서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수입사 KS와인

수상 와인 리스트

- Bronze** Aresti Trisquel Syrah

Viña Carmen

비냐 카르멘은 1850년에 크리스티안 란즈에 의해 설립되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만큼 최조라는 수식어를 많이 가지고 있다. 칠레 최초의 와이너리, 오늘날 칠레의 대표 포도 품종이 된 까르미네르 와인을 만들고 판매한 최초의 와이너리 등 비냐 카르멘을 중심으로 칠레의 와인 산업이 발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냐 카르멘은 170년 이상의 경력을 토대로 유기적이며 지속 가능한 와인을 만들기 위해 쉬 없이 노력하고 있다.

수입사 롯데칠성음료

수상 와인 리스트

- Gold** Carmen Reserva Premier Cabernet Sauvignon



Viña Concha Y Toro

콘차이 토로는 1883년 최고의 와인을 만들고자 했던 설립자 멜초르 콘차이 토로의 꿈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와인이 전 세계 소비자에게 독특한 경험을 선사하길 바라며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와인을 빚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와인 브랜드로 꼽히며 140개 이상의 국가로 수출하며 입지를 다지고 있다. 수입사 금양인터내셔널

수상 와인 리스트

- Gold** Marques de Casa Concha Urban Edition
- Silver** Marques de Casa Concha Etiqueta Negra
- Bronze** Marques De Casa Concha Carmenere
- Bronze** Terrunyo Carmenere

Viña Morandé

와이너리 창립 멤버 중 한 사람인 파블로 모란데가 비냐 모란데를 설립한 것은 1996년이다. 미래에 대한 비전과 대담함을 가지고 있던 그는 카사블랑카 밸리의 잠재력을 발견해 이곳에서 포도밭을 가꾸게 된다. 2011년에는 오랜 와인 양조 경력을 가진 와인 메이커 리카르도 배티그를 영입했다. 페루아의 다양성을 와인에 표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포도 재배부터 양조, 숙성, 병입까지 모든 과정에서 정성을 다해 와인을 생산한다. 수입사 WS통상

수상 와인 리스트

- Silver** House of Morandé
- Silver** Morandé Gran Reserva Syrah Cabernet Sauvignon



Viña San Esteban

비냐 산 에스테반은 칠레의 가장 오래된 와인 산지인 아콩카과 밸리에 있다. 1974년에 설립된 이곳은 안데스산맥의 경사면과 아콩카과 강을 따라 펼쳐져 있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산 에스테반의 와인은 좋은 환경에서 자란 포도를 가지고 현대 기술을 접목시켜 와인을 빚기 때문에 복잡하고 우아한 아로마를 표현한다. 이들은 특히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천하기 위해 포도밭을 관리하며 양조 및 폐기물 처리 등에 최선을 다한다. 수입사 비노파라다이스

수상 와인 리스트

- Bronze** In Situ Signature Wines



LUIS FELIPE EDWARDS

WINE OF CHILE

Viña San Pedro Tarapaca

비냐 산 페드로 타라파카(이하 VSPT) 그룹은 세계 20대 와인 생산업체이자 칠레의 프리미엄 와인 및 스파클링 와인을 판매하는 선두주자 그룹이다.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기반으로 한 여러 와이너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카차포알, 꾸리코, 마이포, 마울레 등 특색 있는 산지에서 포도밭을 관리한다. VSPT 그룹에 속한 칠레 와이너리로는 산 페드로, 타라파카, 레이다, 산타 헬레나 등이 있다.

수입사 다수

수상 와인 리스트

- Gold** Altair
 - Silver** Cabo de Hornos Cabernet Sauvignon
 - Silver** Castillo de Molina Sauvignon Blanc
 - Silver** Gato Negro Carmenère
 - Bronze** 1865 Selected Blend Heritage Blend
 - Bronze** 1865 Selected Vineyards Syrah
 - Bronze** Gato Negro Chardonnay
 - Bronze** Leyda Single Vineyard Falaris Hill Chardonnay
- 수입사 금양인터내셔널

- Silver** Santa Helena Gran Reserva Cabernet Sauvignon
 - Silver** Tarapaca Gran Reserva Sauvignon Blanc
 - Silver** Tarapaca Gran Reserva Syrah
 - Bronze** Tarapaca 145 Anniversary Gran Reserva Red Blend
 - Bronze** Tarapaca Gran Reserva Carmenere
 - Bronze** Tarapaca Gran Reserva Etiqueta Negra Carmenere
 - Bronze** Tarapaca Reserva Carmenere
- 수입사 하이트진로

Viña Santa Carolina

1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와이너리의 유산을 지켜온 산타 캐롤리나. 일관된 품질의 와인을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들은 와인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포착하고 와인의 스타일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안드레스 카바예로, 이반 마르티노비치, 알레한드로 웨델레스 등 수년간 와인 업계에서 실력을 쌓아온 유능한 와인 메이커들과 와인을 생산하고 있으며 80개 이상의 국가에서 국제적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수입사 롯데칠성음료

수상 와인 리스트

- Bronze** Carolina Reserva Chardonnay
- Bronze** Santa Carolina Reserva de Familia Carmenère
- Bronze** Santa Carolina Reserva de Familia Selected Casks

Yali

얄리 와이너리는 칠레 국립 산림 공사가 만든 자연 보호 구역인 얄리 습지에서 영감을 받아 지어졌다. 수많은 철새의 휴식처가 되는 얄리 습지는 환경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와이너리의 가치와 닮아 있다. 얄리는 칠레 중서부의 태평양 연안에 있는 발파라이소에 자리하고 있다. 쿨차구아, 카사블랑카, 마이포 등에 포도밭을 관리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와인 산지인 아팔타 빈야드에도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다. 수입사 레뱅드매일

수상 와인 리스트

- Gold** Yali Plus
- Gold** Yali Wetland
- Silver** Yali Three Lagoons Gran Reserva Chardonnay
- Bronze** Yali Limited Edition Cabernet Sauvignon
- Bronze** Yali Three Lagoons Gran Reserva Carménère



Viña Luis Felipe Edwards has grown to be the largest 100% family-owned and managed Chilean winery, exporting to 100+ countries worldwide, with an extensive medal tally for our wines. We are a well-established team dedicated to creating the finest wine experience - two generations of the Edwards family are actively involved in keeping the brand synonymous with quality and traditional family values.



AWARD WINNING CHILEAN WINE PRODUCER